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9.13(금) ~ 2024.9.19(목)

제공일시 2024 09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9.13(금) ~ 2024.9.19(목)

제공일시 2024 09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 27일부터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한다

- 미국 정부가 전기를 비롯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시행함
-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3일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한 추가 관세율을 이달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오름. 현재 7~25% 수준인 철강·알루미늄의 관세는 25%로 일괄 상향됨. 태양광 패널에는 50%, 리튬이온 배터리와 광물·부품 등에 대해선 25%의 관세가 적용됨

[\(조선일보 2024.9.18\)](#)

2. 獨, 스페인·이탈리아 이어 中 전기차 고율 관세 반대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독일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이어 사실상 중국의 편에 서는 입장을 내놓음
- 1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전날 베를린을 방문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에게 “독일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중국 자동차·부품 기업의 유럽 투자를 환영한다”며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함
-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 대거 진출해 있음. 이에 독일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그간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디지털타임스 2024.9.18\)](#)

3. 덴마크, 북해 에너지섬 프로젝트 연기... 건설비 2배 늘어

- 덴마크가 총 투자비 약 11조원을 투입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북해 에너지섬 프로젝트를 연기함. 건설비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면서 벨기에가 참여 중단을 밝혔기 때문임
- 12일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 자료에 따르면, 라스 아가르드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 장관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북해에 건설을 추진 중인 3GW 규모 에너지섬(Energy Island) 프로젝트를 기존 계획보다 최소 3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에너지경제 2024.9.12\)](#)

국내 정책

1. 내년부터 450억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 해수담수화 기술 확보

-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대체 수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우선, 내년부터 5년간 국고 354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95억5천만원의 민간투자를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 환경부는 이번 연구개발(R&D)로 전처리와 역삼투 등 해수담수화 본 공정 에너지 소비량을 1㎡당 2.2kWh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확보할 계획임
- 투입된 해수 대비 생산된 담수 비율인 생산수 회수율 측면에선 이를 80%까지 높이는 것을 기술개발 목표로 잡음

[\(연합뉴스 2024.9.18\)](#)

2. '탈원전 상징' 신한울 3·4호기, 8년 만에 건설 허가... '원전 부활' 본격화

-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돼 '탈(脫)원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의 건설이 드디어 재개됨
- 8년여 만에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간 일감에 목말랐던 원전 산업계에 '수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전문가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음
-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함

[\(이데일리 2024.9.12\)](#)

3. 두산 계열사 합병 계기, 금융위 "합병가액 산정 개선방안 적극 검토"

- 금융위원회가 두산그룹의 계열사간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지금은 비계열사간 합병 때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발표돼 있는데, 이를 계열사간 합병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임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산식에서 산정하는 것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이나 시장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두산그룹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따른 입장임

[\(한겨레 2024.9.12\)](#)

글로벌 기업

1. 미국 포드, 인도 '유턴'... 폐쇄했던 공장 재가동한다

- 미국 포드자동차가 인도 생산을 중단하고 사실상 철수한 지 2년 만에 폐쇄 상태였던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州) 공장 가동을 재개함
- 14일(현지시각) 벵갈루루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포드는 전날 성명을 통해 타밀나두에 있는 첸나이 공장을 수출용 차량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함
- 업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생산기지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포드 측도 이런 관점에서 첸나이 공장 재가동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딜라이트닷컴 2024.9.16\)](#)

2. 테슬라, 내달 캘리포니아서 로보택시 공개... 구글 웨이모 견제구(?)

- 테슬라가 로보택시 데뷔 무대를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의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의 안방인 캘리포니아주로 정함
- 관세 등에 가로막혀 신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로보택시 출시가 미뤄진 웨이모를 견제하는 동시에 로보택시 시장 진출 신호탄을 쏘
- 1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다음달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임. 발표 장소로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가 유력함

[\(더구루 2024.9.15\)](#)

3. 아마존, 재택근무 모두 없앤다... 내년부터 주 5일 출근

- 미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내년부터 재택근무를 전면 중단할 방침임. 아마존은 16일(현지시각) 최고경영자(CEO) 앤디 재시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창조하고 협력하고 서로 연결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힘
- 재시 최고경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경영진급 간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지 않는 한 주에 5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함

[\(한겨레 2024.9.17\)](#)

4. 포윈, 워렌 버핏의 BHE 리뉴어블과 태양광 저장 배터리 공급 협약 체결

-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Berkshire Hathaway Energy) 계열사인 BHE 리뉴어블(BHE Renewables)이 에너지 저장 솔루션 제공업체 포윈(Powin)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들은 티타늄 메탈 코퍼레이션(Titanium Metals Corporation, Inc., TIMET)에 태양광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을 위한 티타늄 제품을 제조할 예정이라고 밝힘

[\(임팩트온 2024.9.13\)](#)

국내 기업

1. 설비구축·인력 확보 마무리… 현대차 HMGMA 내달 가동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전기차(EV) 시장을 겨냥해 조지아주에 만든 ‘메타플랜트’가 가동 초읽기에 들어감. 공장 인프라와 설비가 구축됐고, EV 생산을 위해 800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확보함
- 현대차는 10월부터 메타플랜트를 가동해 세계 EV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본격적인 시장 확장에 나설 계획임
- 현대차는 특히 메타플랜트에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제조해 EV, 하이브리드차(HEV), EREV 등 친환경차 전 차종에 대한 생산 기반을 완성함

[\(서울경제 2024.9.18\)](#)

2. 삼성중공업,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해양플랜트 개발한다

- 삼성중공업이 미국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 ‘KBR’과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해양플랜트 개발에 협력함.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포집 기술을 KBR로부터 받아 활용함
- KBR은 12일(현지시각)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해양플랜트 개념연구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힘. KBR의 탄소 포집 기술에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전문 지식을 결합해 블루 암모니아 해양플랜트를 개발하는 것이 골자임

[\(더구루 2024.9.13\)](#)

3. 수소·지속가능항공유 생산… DS단석, 1조 들여 ‘자원콤플렉스’ 구축

- 글로벌 자원 순환 전문 기업인 DS단석이 1조원을 투자해 지속가능항공유(SAF)부터 수소까지 회사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종합 생산하는 기지를 구축함. 올해 완공되는 원료 공장을 시작으로 전 과정에서 밸류체인을 형성해 SAF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임
- 18일 업계에 따르면, DS단석은 최근 군산 공장 인근에 7만 평의 부지를 추가 매입함. 회사는 이 부지에 총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 SAF-바이오디젤(HVO)은 물론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서울경제 2024.9.18\)](#)

4. LS일렉트릭-GST,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국산화

- LS일렉트릭이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lobal Standard Technology, 이하 GST)와 데이터센터 전력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버 액침냉각시스템 국산화를 위해 손을 잡음. LS일렉트릭은 GST와 지난 11일 ‘액침냉각시스템 제어솔루션 국산화 및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힘
- 이번 협약을 통해 LS 일렉트릭의 자동화 분야 영업 네트워크와 GST의 냉각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계별 협력모델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동사업을 추진해 국내외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임

[\(아주경제 2024.9.14\)](#)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9.13(금) ~ 2024.9.19(목)

제공일시 2024 09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2026년 본격 시행, 기업들을 위한 CBAM 대응 전략 6가지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유럽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 12일(현지시각) 유럽 현지 언론 유렉티브는 CBAM 준수를 위해 유럽 기업들이 공급망 영향도 파악을 위한 컨설팅 의뢰, 비용 완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 배출량 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2026년부터 시행되는 CBAM 확정단계를 앞두고 기업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 금융 및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임. 글로벌 금융 및 법률정보 제공업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는 6일(현지시각) CBAM 대응을 위해 기업이 시행해야 할 6가지 주요 지침을 제시했음
- 첫째, CBAM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제품 및 공급업체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함. 즉, 기업의 전체 공급망을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공급업체가 어떤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임. 이 과정에서 CBAM의 적용을 받는 공급업체들을 식별해내고, 정확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해외 공급업체의 경우, CBAM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량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음
- 둘째, 공급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수정해야 함. CBAM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로부터 탄소배출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조항들을 계약서에 새롭게 추가해야 하기 때문임. 주요 조항으로는 탄소 배출 데이터 제공 의무, 데이터 개선을 위한 협력, 명확한 책임 분담, 불이행 시 발생할 제재 조치, 기밀유지 등이 있음
- 셋째, CBAM을 위한 보고 절차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탄소 배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급망 내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와 탄소 관련 데이터를 관리 담당자를 정확히 파악해 놓아야 함. 기업 내부에서도 CBAM 규제 준수 전담자를 설정해 누가 EU 당국에 신고를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내외부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함. CBAM 준수를 위해서는 조달, 세무, 재무, 법무, ESG 등 다양한 내부 부서 간의 협력이 필요함.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부서별 산출물 및 데이터 관리 포인트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외부의 산업전문가나 탄소시장 전문업체로부터 지식 공유, 선진 사례 확보 등을 모색하는 것도 좋음
- 다섯째,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발굴해 공급망에 도입해야 함. 공급망 전반을 평가하고 재검토해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을 찾고, 이를 위한 새로운 조달업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는 CBAM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도움이 됨.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분석 자동화,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도구 등 IT 솔루션을 도입할 수도 있음
- 여섯째, EU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CBAM 대비에 나서야 함. 신고 의무가 있는 CBAM 적용 대상 제품을 사전에 파악하고, 배출량 계산을 위한 방법론 검토, 수집해야 할 데이터 포인트들을 도출해야 함. 실제 탄소 배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략적인 표준치를 확보해 EU 고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를 파악해야 할 것임
- 2023년 5월 발효된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시범 적용(전환기간), 2026년 1월부터는 적용 재화를 추가해 본격적인 시행(확정단계)에 들어감
- 전환기간 중인 현재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들이며, 2026년 본격 시행 이후에는 대상 품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큼

- 2023년 10월부터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 배출 정보를 수집해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 총량을 보고해야 함.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세금 부과가 시작돼 수입업체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인증을 구매해야 함

- CBAM에 따른 탄소세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동일하게 책정됨. 즉, EU ETS 배출권의 가격이 오르면 CBAM의 탄소세도 증가하게 됨. 이러한 메커니즘은 EU 역내 제품과의 수입품에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됨

[\(인팩트온 2024 9 19\)](#)